

선진국의 개도국 地域研究에 관한 사례연구*

金 信 行**

<目 次>	
I. 머리말	III. 先進諸國의 地域研究
II. 개발원조의 이념과 지역 연구의 방향	IV. 우리나라 地域研究의 方向

I. 머리말

地域研究에 관한 관심은 주로 경제발전과 南·北간에 經濟協力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경제발전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의미를 정확히 규정하기란 실제로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경제발전을 교육·보건·위생 등 그 사회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세계경제는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또는 先進國과 後進國으로 구분된다. 先·後進國간에 경제협력문제 또는 이른바 南北문제 (North-South Problem)가 국제경제질서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國際化’와 ‘開放化’가 중시되는 국제환경속에서는 先進國이 後進國을 도와 주어야 하겠다는 人道主義的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先進諸國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견지하기 위해서도 後進國의 경제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南北간에 발생하는 경제협력문제는 국제경제질서를 보는 視角 또는 市場秩序에 대한 見解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市場制度가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效率性을 제고시키는 제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環境污染, 所得分配의 歪曲, 外債累增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역시 경험과 지역 연구의 정책방향에 커다란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 본 연구는 1989년도 개도국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 서울대, 국제경제학

구나 미류달(Gunnar Myrdal)과 같은 경우 市場制度는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질서에도 衡平과 均衡을 가져올 自動調節的인 機制能力이 없음을 그의 著書 「아시안 드라마」에서 力說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後進國은 싱거-프레브쉬(Singer-Prebisch)의 주장대로 交易條件의 악화때문에 國際市場제도에 회생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後進國이 先進國으로부터 받는 援助와 經協은 後進國의 ‘당연한 權利’라는 입장이 서게 된다.

南北간에 經協은 經協當事國들은 물론이지만 세계경제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상황이다. 經協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地域研究는 결국 經協에 대한 基本的인 理念과 視角에 좌우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연구의 정책과 방향은 經協에 대한 철학과 시각에 근거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는 밝히고자 한다. 美國・日本・유럽 등의 先進諸國의 經協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 제 2 차대전 이후 경제원조는 4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이것을 시대적으로 개관해 보면 1950년대는 東西冷戰下에 美・蘇의 원조경쟁이 치열하였고, 1960년대에는 國際情勢가 평화공존으로 이행함에 따라 南北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경제원조가 제공되었다. 1970년대는 先進國경제의 침체와 資源民族主義에 의한 石油輸出機構(OPEC)의 부상, 국제경제의 多極化현상으로 경제원조가 동요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1980년대는 기존의 경제원조정책을 반성하여 증여형태를 지양하고 시장기구를 통한 효율적인 경제원조를 도색한 시기였다. 또한 韓國을 포함한 新興工業經濟(NIES)의 부상에 따라 국제경제 역할분담 요구가 점증하고 이에 따라 南南協力方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또 90년대와 앞으로 다가 올 2000년 대에는 蘇聯・中國 및 東歐경제의 開放화와 自由市場경제의 도입에 따라 東西간에 經協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개발원조의 이념과 지역연구의 방향을 설명하고 제 3 장에서는 世界銀行, 日本, 카나다와 北歐 등 先進諸國의 지역연구의 정책방향과 연구결과들을 비교・검토한다. 그리고 제 4 장에서는 선진국들의 지역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經協과 지역연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개발원조의 이념과 지역연구의 방향

개발원조의 정책 방향은 크게 네개로 구분된다. 그 첫째는 國家安全保障이며 둘째는 國家經濟利益이고 셋째는 人道主義이며 마지막 넷째는 國際經濟主義이다.

國家安保主義에서는 개발원조의 동기를 국제정치적인 安定과 平和유지에 두고 있다. 특별히 1950년대 이후 美國의 원조에서 나타난 성격으로 低開發國의 공산화를 援助를 통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援助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말하자면 經濟援助를 援助供與國의 순수한 경제이익에 두지 않고 정치적인 安定과 外交的인 목표달성을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에 원조의 특성이 있다.

이와 반면에 국가경제이익을 목표로 한 원조에 있어서는 정치·외교적인 목적보다는 援助供與國의 경제적인 이익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원조공여국은 원조를 통해서 수출시장의 확대, 안정적인 원자재공급원의 확보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 戰後의 西獨이나 日本과 같은 경우의 원조는 국가경제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의 北歐 3국과 덴마크 등은 人道主義에 원조정책의 기본이념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원조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어느 국가의 원조정책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규정짓는 데에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안보와 정치·외교에 정책이념을 두고 있을지라도 국가경제이익이나 복지이념을 떠날 수는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福祉정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조정책에서도 자국의 경제이익과 정치·외교적인 측면을 도의시 할 수도 없다.

확실한 것은 어떤 정책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든지 간에 결국은 國際經濟의 흐름과 변화에 적합한 연구를 하는 이른바 國際協力主義의 원칙이 각국의 원조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地域研究는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을 연구함으로써 南·北상호간에 복지를 증진시키고 共存共榮의 번영에 기여함에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연구방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經協의 기본정책 방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1. 프로젝트 研究

50년대와 60년대에 결친 經濟開發理論에 있어서는 헤로드-도마(Harrod-Domar)와 로스토우(W. Rostow)의 ‘빅·풋슈’ 이론과 너르크스(R. Nurkse)의 資本形成理論이 그主流를 이루고 있다. 이 이론들에서는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資本形成과 投資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低開發國에는 이 不足資源을 충당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연구의 초점은 체너리-스트라우트(Chenery-Strout)의 두 ‘캡’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족 자원에의 조달문제로 집약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開發理論들은 그 뿐만 아니라 케인즈(J.M. Keynes)에 두고 있고 資本主義經濟 발전에 있어서 投資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主流開發理論은 위와 같은 新케인즈主義와 미류달(G. Myrdal) 등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는 福祉主義로 大別된다.

이와 같이 投資에 역점을 둔 開發theory은 특히 1950년대 美國의 國際開發局(USAID)의 원조기준 마련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국제정치적인 판단 아래에서 원조지원대상국이 선정되면 거기에 적합한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投資效率性의 판단기준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公正割引率, 利子率 등의 적절한 이용에 의해서 투자가이드라인을 선정해야 한다. 리틀-미어리스(Little-Mirrlees)가 제안한 바 있는 「OECD 매뉴얼」과 센(Sen)이 提唱한 바 있는 「UNIDO 가이드 라인」이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評價기준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원조의 商業銀行의 성격을 가장 크게 나타내고 있다. 응자에 대한 債權보전을 위해서 ① 프로젝트의 国民經濟적 우선도 ② 프로젝트의 財務的·技術的 진전성과 수익성 ③ 프로젝트 실시에 수반되는 관리나 기술의 정비상황 ④ 借入國의 대외채무변제능력 등을 확인한다(松井謙, 1979 : 117).

그러나 프로젝트 베이스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援助의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南北간에 소득격차는 더 커지게 되어서 결국 70년 원조정책의 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 「피어슨 보고」가 나오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開發援助 전략의 목표가 원조 受入國의 自律的 成長에 있는 만큼 ‘테이크-오프’(take-off)에 필요한 전 단계에 있어서는 援助供與國으로부터 援助의 質·

量의 양 측면에서의 확대공급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원조 受入國의 自救努力이 중요함을 본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援助浪費說’이 등장하고 프로젝트 베이스 援助에 대한 비판과 自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첫째로 가장 강도높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條件附 援助’이었다. 材料 및 部品 등의 구매국을 援助供與國으로 지정하므로 말미암아서 원조의 비효율성을 조장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은 프로젝트연구는部分均衡的인 收益費用분석에 치우친 나머지 원조 受入國의 경제전반의 입장에서 보는 평가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투입된 원조가 성장에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줄 수 있는 援助受入國의 社會間接資本 등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쳐’의 부족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投資가先行되면 開發이 이를 될 수 있다는 ‘빅·풋슈’의 開發思考에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開發思考의 전환과 더불어 1981년에는 소위 「베르그 보고서」(Berg Report)가 世界銀行으로부터 발표되었다. 世銀은 70년대 末에 아프리카에 대한 프로젝트 貸付의 실패를 사실상 사업규모의 과다한 확대, 기구상의 취약점, 부문정책의 不適應, 국제경제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諸國의 국내정책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결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 (1) 공업부문을 過保護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역·환율이 농업생산을 저해하게 되었다.
- (2) 거대한 公共部門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가격 ‘메카니즘’이 效率提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영기업체들은 가격기구의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고 경제전체에 부담을 안겨줄 뿐 低成長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 (3) 物價·稅制·換率은 특별히 농업생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諸國의 换率은 국내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환율이 절하되는 경우가 없어서 實質換率은 대폭 切上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輸入價格은 너무 낮고 輸出利益은 줄어 들어서 加工製品의 수출경쟁력은 너무 약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수출산업보다는 수입대체산업에 보다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말하자면 「베르그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농업부문에 국제경쟁력을 제고 시켜서 수출을 기반으로 한 개발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思考에 중대한 전환을 뜻하고 있다. 市場機構에 기초한 국제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개발戰略의 중요성을 本 報告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輸出主導型 경제 성장전략을 택해 온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등의 新興工業經濟(NIES)와 日本경제의 성장이 이러한 정책제안의 배경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50년대와 60년대의 개발政策의 理論的 배경이 되어왔던 新케인즈學派의 投資중심의 프로젝트 베이스의 연구로부터 市場중심의 新自由主義思想이 개발研究에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그래서 현금에 世銀을 중심으로 한 개발研究의主流는 福祉主義가 가미된 新自由主義思想이다.

2. 프로그램 베이스 援助

이러한 新開發思考에 입각해서 종전의 프로젝트 베이스 개발援助는 프로그램 베이스 援助의 형태로 점차로 전환되어 갔다. 특별히 世銀의 「世界開發報告 1980」에서는 構造調整貸付(SAL)의 구상이 발표되었다. SAL은 一國의 경제가 中·長期적으로 경제성장과 국제수지의 安定을 回復·維持할 수 있도록 經濟構造의 修正과 政策 및 制度의 개혁을 지원하는 非프로젝트 貸付를 가르킨다. 그러나 SAL은 종래의 非프로젝트 貸付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1) 開發政策·改革의 성질과 범위 등에 관하여 世銀과 원조 受入國측과의 적접대화를 통해서 貸付를 결정하게 되는 점, (2) 一定의 정책개혁을 적접 지원하기 위해서 數年에 걸쳐서 資金을 제공하게 되는 점, (3) 특정의 投資 프로그램과 링크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外貨를 신속히 지불하는 점.

貸付對象國에는 실로 국제수지가 악화된 국가이거나 또는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국가로서 意義있는 정책변경이나 제도개혁을 추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국가가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借入을 희망하는 국가가 경제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정책적·제도적 개혁에 관해 내놓은 '調整 프로그램' (adjustment programs)의 내용을 기초로해서 貸付承認을 하게 된다. 실제로는 국제통화

기금(IMF)과의 國際收支의 安定화협정을 체결한 국가만이 SAL의 貸付對象國이 된다. 또한 경제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책정해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정치적 능력이 없는 국가이거나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部門調整貸付’(Sector Adjustment Lending(SECAL))가 가능하다. SECAL의 경우는 SAL의 경우에 비해서 정책개혁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

一國의 정책과 제도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被援助國의 경제나 무역수지가 점차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SAL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7년도 世銀年次보고서에는 世銀의 業務評價局(OED)이 최근 실시한 82년도까지 10개국에 대한 15件의 SAL에 대한 暫定評價結果가 게재된 바 있다. 여기에 따르면 SAL의 실시상황과 효과는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SAL의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완전히 실시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촉진을 위해 실질환율의 지속적인 引下도 매우 어려운 일임이 드러났다. 先進諸國들의 보호무역과 규제가 輸入自由化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시에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수입자유화의 진전이 불충분한 까닭에 국내공업에는 실질적으로 경쟁력압박을 작용하는 요인이 되었다.

가격정책에는 약간 진전이 있었다. 주요식량작물이나 수출작물의 생산자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수준까지 상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까운 수준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비료 또는 다른 농업투입재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내리거나 폐지 되었다. 그러나 公共企業의 관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화되었으므로 制度改革의 자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한 改革의 실시나 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開發途上國의 기대에는 미흡하다(林晃史, 1988:14).

3. 國際協力主義의 台頭

50년대와 60년대에 성장을 지속해 오던 세계경제는 70년대에 들어와서 제 1·2차에 걸친 오일쇼크로 말미암아 세계불균형의 조정국면을 맞게 되었다.

80년대 초에 선진국 세계가 경험했던 극심한 인플레와 실업율의 증가는 새로운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80년대 초기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서 단행되었던 高金利정책과 이로 달미암은 달러 強勢로 美國의 財政・貿易의 兩측면에서 쟁동이 赤字의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美國의 쟁동이 赤字는 다시 85년 9월의 프라자 협상으로 이어졌고 日本의 엔貨와 독일의 마르크貨의 急勝勢로 국제금융시장은 급변하기에 이르렀다. 美國의 高金利와 달러 强勢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더불어 제3세계의 外債問題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80년대 말에 와서 세계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는 마치 70년대 말에 있었던 오일쇼크에 反作用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3세계의 外債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農產物・鑛物 등과 같은 一次商品 수출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 收支黑字國으로 부상되고 있는 日本을 포함한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등의 이른바 新興工業經濟(NIES)들은 다같이 資源貧國임을 고려할 때 資源富國으로부터 받은 70년대 말의 오일쇼크가 80년대 말에는 資源貧國으로부터 다시 資源富國으로의 逆ショ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80년대의 세계경제를 오일오너의 還流와 관련된 국제적인 조정과정으로 본다면 90년대의 세계경제는 資源貧國 특히 日本의 이른바 '쟈판 머니'의 국제적인 還流와 조정과정에 있다.

G-5 또는 G-7의 財務長官회의와 頂上會談을 통해서 80년대에는 물론이지만 앞으로 90년대와 2000년대를 향해서는 이를 先進諸國간에 국제경제의 조정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제경제의 원만한 순환과 조화가 세계경제의 발전에 관건이 되고 있다.

최근 브래디 案에서 제시된 채무국을 위한 利子率탕감조치는 80년대초의 美國의 무리했던 高金利정책과 債務國에게 불리한 교역조건의 악화를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더우기 선진공업국의 공업화로 야기되고 있는 환경과 대기오염 그리고 오존層의 파괴는 국제간에 '公正한 成長'의 정신을 더욱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채무국들은 南쪽에 있으면서 北側의 先進工業國들의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債權國과 債務國간에 또 先進國과 開途國간에 경제협력문

제를 단순히 二國間의 双務的인 협상보다는 國際經濟질서와 변화에 순조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多者間協商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최근에 와서는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중심으로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東歐圈에서의 自由化물결과 市場經濟도입이 西方세계의 국제경제질서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경제질서가 중요해지고 있다. 東·西獨의 단일통화방안과 西獨경제가 東獨의 적자경제를 부담함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고 있는 西方경제 전체로서의 부담 등도 西方의 국제경제질서가 무리없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南北간의 경제협력문제는 단순히 南과 北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北北간에 南南간에 또 東西간에 펼쳐지고 있는 국제경제여건을 고려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開發理念에 있어서 國際協力主義이 뜻하고 있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의 開發理論에 입각한 開發援助의 理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開發의 正統理論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新케인즈派에 속하는 헤로드-도마의 成長理論, 로스토우의 ‘비·풋슈’ 너르크스의 ‘後進國의 資本形成’ 루이스의 ‘無制限勞動供給下의 경제발전’ 등의 이론이 나왔었다. 이 이론들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으나 경제개발에 있어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는相通한다.

50년대 말경 부터 미류달, 허쉬만(A. Hirschman), 민트(H. Myint) 등의 正統派에 대한 비판적인 開發經濟學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援助受入國의 입장에서 본 프레브쉬-싱거 등의 長期的인 交易條件의 惡化論이 나오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류달에 의해서 先導된 北歐의 制度學派에 속하는 福祉學派가 나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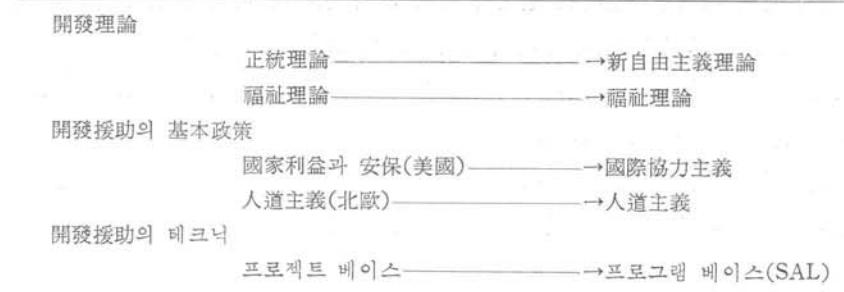
正統派와 福祉學派가 開發援助의 實務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체너리-스트라우트의 두 ‘캡’理論, 아브라-모비츠의 債務循環모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통파이론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 베이스 원조로 성과를 보지 못했고 이로부터 新自由主義로 開發理論의 관심이 돌려졌다. 이러한 新自由主義의 흐름은 開發援助의 프로젝트 베이스로부터 프로그램 베이스로의 방

향전환과 그 脈을 같이 하고 있다. 더우기 80년대 들어와서 부터는 國際經濟 不均衡이 심화되면서부터 國際協力에 입각한 開發理論의 발전이 重視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國際經濟協力의 차원에서 新自由主義와 福祉主義를 결합시킨 開發理論이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로그램 베이스 援助의 一還으로 시행되고 있는 構造調整貸付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의 하나이며 이와 병행되어 출간된 체너리-로빈슨-시리퀸 등의 開發途上國經濟의 구조조정 연구도 開發theory에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체너리, 1986).

〈표 1〉 開發理論과 援助理念의 變遷



위의 〈표 1〉은 지금까지의 開發theory, 開發援助의 기본정책 방향 그리고 開發援助의 테크닉의 변천을 비교하고 있다.

우리는 위의 〈표 1〉에서 開發theory의 展開過程, 開發援助의 基本政策方向, 開發援助의 테크닉 그리고 開發援助의 形態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음을 찾을 수 있다. 開發援助의 기본정책에 있어서 人道主義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50년대와 60년대에 開發theory에서 正統을 이루었던 新케인즈理論은 80년대에 와서 점차 市場理論을 중시하는 新自由主義theory으로 代置되고 있는 점은 큰 변화이다. 開發theory의 변천과 병행해서 開發援助의 基本政策도 國家利益과 安保에서 점차로 國際協力主義가 강조되고 있는 점도 開發theory에 있어서 新自由主義theory와 연관되어 있다. 또 開發援助의 基本的인 정책전환과 더불어 開發援助의 테크닉이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프로그램 베이스로 전환되고 있으면서 構造調整貸付(SAL)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III. 先進諸國의 地域研究

1. 地域研究의 内容分類

앞에서 우리는 開發援助의 基本的인 理念과 그 배경이 되는 開發理論들을 살펴 보았다. 地域研究의 방향은 결국 연구결과의 활용목적과 기본적인 開發援助의 정책목표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나 우리는 地域研究의 研究方向에 대해서 크게 基礎研究와 政策研究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基礎研究에서는 주로 그 지역의 정치·문화·사회·경제·역사 등 순수한 지역연구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에는 우선 그 지역의 言語, 生活, 習慣 등을 익히고 배우며 그 지역에 深層理解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특징이 있다. 심층연구를 해야되는 만큼 時間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주로 長期計劃의 연구에 속한다. 이러한 연구는 과거 植民地를 가지고 있던 從主國이 被支配國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에 基礎資料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과거 식민국에의 文化政策을 수립한다든가 경제·정치 마찰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그 深層分析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연구의 威力이 있다.

다음으로 基礎研究에 대비한 政策研究를 생각해 볼 수 있다. 政策研究는 주로 經協對象國과의 효율적인 경제협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를 뜻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世銀이 貸付를 보장하기 위해서 債務國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는 순수한 의미에서 政策研究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다시 대상지역의 巨視的인 分析을 하느냐 微視的인 分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의 방향이 나누어 진다.

巨視的인 分析에 있어서는 주로 연구 대상지역의 개괄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된다. 특히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경제의 金融·財政·所得·換率·利子率 및 國際收支와 貿易이 주요연구 대상이 된다. 특히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巨視的인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정책제공 등이 그 주요업무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微視的인 研究에서는 經協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발전의 애로요인 (bottleneck)이 연구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프로젝트 評價와 그 妥當性의 조사와 같은 연구는 바로 대표적인 微視研究에

해당된다.

南北經協에 있어서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속하는 障碍要因제거에 관한 연구는 바로 이 微視의인 분야에 해당된다. 教育·훈련·技術제공 등의 經協은 주로 이 미시적인 부문으로 분류된다. 기업가의 무역과 투자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해외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투자자나 무역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역연구도 微視의인 연구에 속한다.

이들 연구내용 중에서 어느 연구에 더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느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經協의 기본이념과 研究의 목적에 달려있다.

이를테면 해당지역의 深層理解를 목적으로 한다면 基礎研究에,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연구는 巨視의인 정책 연구에, 또 開發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연구는 微視의인 경제연구에 각각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다음에서는 美國의 世銀, 日本의 아시아 經濟研究所와 카나다의 IDRC의 원조계획과 운영 그리고 지역연구의 내용을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2. 世界銀行의 地域研究方向(開發型地域 研究)

世銀(The World Bank)은 國際開發 및 再建(IBRD), 銀行國際發展協會(IDA), 國際財政公司(IFC), 多國籍保證機構(MIGA) 등을 포괄해서 지칭한다.

世銀은 先進國으로부터 後進國으로 財政資源을 지원해 줌으로써 開途國의 生活水準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IBRD는 1945년에 設立되었으며 151個의 가맹국이 있다. IBRD는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부를 해 주어야 하며 그리고 貸出國의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말하자면 貸出國의 債務償還能力에 적절한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IBRD의 貸出은 순수한 경제적인 기준과 평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IDA는 196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본질적으로 IBRD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IBRD보다는 低開發國에의 貸與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IBRD 보다 貸出國의 國際收支조전에 덜 엄격하다. 그러므로 IDA의 援助는 주로 년간 個人當 國民소득이 490달러 (1987년 달러기준)미만인 경제에 貸與를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는 40개국이다. 그래서 IDA의

貸出은 IBRD의 대출과 구별해서 IDA 信用이라고 부른다. IDA 信用의 조건은 無利子에 10년 居置 40~50년의 償還期間을 가진 매우 조건이 좋은 信 用이다.

IFC는 1956년도에 설립되었고 低開發國의 경제 발전을 보조해 주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國內·外의 자본동원이 IFC의 주요기능이다. 기술원조나 지원을 통하여 주로 民間部門으로부터의 低開發國 투자 활성화를 이룬다. 1989년도에는 90 개의 프로젝트에 약 17억 달러를 지원했다.

MIGA는 1988년도에 새로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 주된 목적은 非商用 投資장애의 제거를 통해서 開途國으로의 直·間接投資를 촉진하는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MIGA는 投資者에게 非商業的인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동시에 開途國 정부에게 해외투자와 관련된 정책 계획 및 절차에 대한 助言 을 한다.

傳統적으로 世銀은 道路, 鐵道, 通信, 에너지 및 항만시설과 같은 社會間 接資本에의 투자를 지원한다.

3. 世銀의 調査研究

世銀의 研究는 주로 政策·企劃·研究室(PPR; Policy, Planning and Research)에서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 ① 國際經濟研究科(International Economics Department)
- ② 產業 및 에너지研究科(Industry and Energy Department)
- ③ 國際農業研究協議委員會(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 ④ 人口 및 人間資源研究科(Population and Human Resources Department)
- ⑤ 國別 經濟研究科(Country Economics Department)
- ⑥ 農業 및 地域研究科(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⑦ 企劃 및 豫算研究科(Planning and Budgeting Department)
- ⑧ 環境研究科(Environment Department)
- ⑨ 社會間接資本 및 都市開發研究科(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Department)
- ⑩ 戰略企劃 및 評價研究科(Strategic Planning and Review Department)

(11) 經濟發展研究所(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1989년 한 해에 世銀은 研究院들에게 490만불을 지원했다. 이 연구비 배정은 주로 中央기획실의 선발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世銀으로서는 연구전체의 흐름과 방향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世銀에서 出刊하고 있는 World Development Report에 나타난 研究 방향은 〈附錄 別添-1〉에 요약해 놓았는데, 이 연구방향에는 주로

- ① 外債와 構造調整의 問題
- ② 金融仲裁의 問題
- ③ 食糧安保와 餉饑解消의 問題
- ④ 環境問題
- ⑤ 經濟發展에 있어서 人間資源과 女性勞動力의 役割
- ⑥ 民間部門의 發展
- ⑦ 公共企業의 管理

등이 포함되고 있다.

최근의 외채문제에 있어서는 兩次大戰의 중간기간 동안의 外債문제와 債務償還不能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사하라 下部지역의 아프리카 諸國(süb-Saharan African countries) 중에서 世銀의 特別補助支援프로그램(SPA)에 속하지 않는 中進國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또 사하라 下부 아프리카 지역 諸國중에 低所得國의 外債所要에 대한 연구가 1990년도에도 진행중에 있다. 外債의 자금지원에 대한 대체적인 자금조달원으로서 直接投資의 문제도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 ① 國際貸與에 있어서 商銀의 行爲와 制約
- ② 外債와 成長과의 關係
- ③ 對內的인 金融과 金融機關의 危機와 外債償還能力과의 關係
- ④ 外債危機를 채결하기 위한 市場에 근거한 戰略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構造調整의 과정에 대한 보다 더 깊은 理解를 世銀研究의 기본 課題로 선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構造調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巨視經濟 变数들간에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巨視經濟모형의 開發에 研究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構造調整과정에 있어서 노동과 금융시장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또 貿易, 公共財政, 金融部門, 그리고 公共企業들과 같이 構造調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

이다.

民間部門의 발전과 역할에 관한 연구가 構造調整과 관련시켜서 진행중이다. 이 문제들은 巨視經濟적인 구조조정의 잇슈와 더불어 民間부문의 투자, 金融정책과 개인투자 그리고 民間부문으로부터 公共서비스 조달문제 등이 다루어 진다.

貧困문제와 관련하여서는 構造調整의 효과문제를 다룬다. 食量安保문제를 해결하고 地方의 빈곤을 해결하고 都市지역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女性노동력의 경제생산성향상이 최근에 주요 연구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① 情報產業이나 金融市場에 女性人力의 취업에 대한 장벽을 완화시킴으로써 供給에 미칠 수 있는 효과

② 教育・訓練・健康 및 家族計劃이 女性人力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③ 경제정책이 女性노동력의 취업동기에 미치는 효과

環境문제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① 山林의 荒廢化와 砂漠化(deforestation and desertification)

② 傳染病豫防의 問題(pesticide management)

③ 灌溉事業과 鹽分(irrigation and salinity)

④ 農地復舊事業(water shed rehabilitation)

⑤ 種子保護(protection of biodiversity)

환경, 經濟成長 그리고 貧困과의 관계 그리고 構造調整대부와 관련된 環境문제 제반에 걸친 문제들의 研究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이밖에도 研究의 관심이 되고 있는 분야는

① 효율적인 危險管理를 위한 불확실한 未來나 危險에 대한 分析

② 技術進歩와 技術擴散

③ 技術과 人間資源

4. 經濟發展研究所(EDI)

EDI는 世銀의 附設機構로서 低開發國의 발전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간다. EDI는 1984년에 訓練 및 機構援助를 5년 계획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표 2〉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니어 정책 세미나와 같이 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巨視經濟的이고 部門운영을 위한 세미나의 성과가 더 커졌다. 이 외 반면에 프로젝트 분석과 운영에 관한 세미나는 그 관심도가 크지 않았다.

〈표 2〉 EDI訓練 및 機關補助件數(1984~89)

	1984	1985~89(年平均)		1989 實際
		計 劃	實 實	
練修 過程과 세미나				
시니어 政策	8	16	17	20
經濟 및 部門運營	17	35	39	51
프로젝트 分析과 운영	36	18	20	7
訓練過程	11	20	20	23
소 계	72	89	96	101
機關補助				
學問的인 보조	14	} 53 n.a.	31	44
기 타	n.a.		40	55
소 계	14	53	71	99
總 計	86	142	167	200

資料 : *The World Bank Annual Report 1989*, p.91.

1989년도의 EDI프로그램은 巨視經濟와 經濟部門 수준에서 構造調整과 이에 대한 行政處理(implementation)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별히 지속적인 外債문제와 構造調整의 社會的인 費用문제가 연구의 과제가 되었었다. 그리고 金融, 保健, 資源, 公共支出計劃 등에 EDI의 관심이 모아졌다. 構造調整에 있어서 金融部門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EDI는 金融制度評價, 對外金融에 있어서의 革新的인 金融技法과 開發途上國經濟에 있어서 資本市場의展望 등의 연구에 力點을 두었다.

그리고 訓練과 研究所관련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主題가 다루어졌다.

- ① 公行政의 效率提高를 위해서 橫濱적인 分權化의 채택
- ② 地域社會발전을 위한 民間부문의 역할
- ③ 水利灌溉 및 水質管理사업
- ④ 경제 발전에 있어서 女性的의 역할
- ⑤ 아프리카 農業 관리 훈련프로그램

⑥ 開途國으로의 技術移轉과 換率制度

EDI의 1990~94년의 向後 5개년동안의 戰略計劃은 地域社會의 訓練기능을 강화하고 政策課題에 力點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EDI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 ① 각 대상 지역의 優先順位의 確定
- ② 巨視經濟 조정정책으로부터 部門別 조정정책과제로의 점진적인 전환
- ③ 訓練 및 教育자료의 보완 및 보급
- ④ 個人연구활동의 지원보다는 多年間에 걸친 프로그램 연구에의 보조지원의 확대
- ⑤ EDI활동에 대한 體系的이고 深度있는 評價
- ⑥ 世銀內部의 他部署와의 연계활동의 강화로 EDI활동의 활성화.

5. 世銀의 他機構와의 協助強化

世銀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과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등과 협력을 하여 開發事業에 참여한다. 이 밖에도 世銀은 非政府機構(NGOs: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와의 협조를 통해 開發事業의 효율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의 <표 3>은 1973~88년의 기간동안 NGO의 事業別・地域別 참여 件數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分野別로는 농업분야가 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地域別로는 아프리카가 57%로 제

<표 3> 地域別・產業別 NGO의 프로젝트 참여건수(1973~88)

산 업	지 역					총건수	百分比
	아시아	아프리카	유 종동 아프리카	北 아프리카	South 미 아 프 리 카		
농업	25	51	6	8	90	45	
교육—훈련	2	13	1	4	20	10	
인구—보건	8	11	2	5	26	13	
산업—에너지	4	10	4	3	21	10	
사회간접자본—도시개발	6	28	2	6	42	21	
재개발	—	2	—	1	3	1	
총건수	45	115	15	27	202		
점유비	22	57	7	13		100	

資料 : *The World Bank Annual Report, 1989*, p.94.

일 많다.

대표적인 NGO로서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이며 CGIAR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가 있다. CGIAR는 13개의 國際農業研究所(international agricultural-research centers)의 研究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활동 및 훈련을 보조하는 機構로서 40개의 公共·民間부문의 기부자로 구성되어 있는 非公式的인 協會이다. 世銀은 UN의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과 UNDP와 더불어 CGIAR의 後見人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GIAR에서는 世界의 주요 곡·작물을 비롯해서 家畜 및 食糧정책에 관한 연구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CGIAR의 한 中央研究所는 곡물의 種子를 수집·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開發途上國의 研究제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

6. 世銀의 技術援助

世銀의 技術援助는 주로 技術協力부문에의 貸付나 信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8년도의 技術援助의 성격을 가진 貸付額은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

7. 福祉型 地域研究

(1) 캐나다의 國際開發研究所(IDRC: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캐나다의 IDRC는 開途國의 科學 및 技術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1970년 캐나다 議會에 의해서 制定되었다.

IDRC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財政支援을 하고 있다. 즉 농업, 식품보관, 식품가공, 식품유통, 영양, 산림, 수의학, 어업, 환경, 에너지, 열대성전염병, 상수도공급, 보건, 교육, 인구, 경제, 통신, 도시화정책, 경제발전에 있어서 여성노동력의 역할, 지구과학 및 공학, 정보학 등이다.

IDRC는 開途國들이 서로 개발경험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정보망을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IDRC는 개도국의 연구자와 그들의 캐나다에서의 상대역과의 유대관계를 권장하고 있다.

IDRC는 캐나다 오타와(Ottawa)에 本部를 두고 있으며 ① 라틴아메리카·카리비안지역(콜롬비아의 보고타) ② 中東과 北아프리카지역(이집트의 카이로) ③ 南아시아(인도의 뉴델리) ④ 東·南아프리카(케냐의 나이로비) ⑤ 中·서아프리카(세네갈의 다카르) ⑥ 東南亞, 東亞細亞와 太平洋지역(싱가포르)의 6개 도시에 6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IDRC는 캐나다議會에 의해서 財政을 충당하고 있으나 21명의 理事로 구성된 理事會에 의해서 運營되고 있다. IDRC憲章에 따르면 21명의 理事중에서 議長, 副議長 그리고 9명의 理事는 캐나다人이오 나머지 10명은 外國人으로 되어 있다. 이 10명 중에서 7명은 開途國으로부터 선발된다.

IDRC가 支援하는 프로그램들은 開途國들로 하여금 그들 研究所와 研究者들의 研究能力을 배양시켜서 開途國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 나가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IDRC는 開途國들 스스로가 그네들의 研究우선순위에 따라 정해놓은 研究課題를 지원한다. 그리고 이 연구과제는 온전히 開途國의 研究者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2) 分野別 研究支援概要(1989년도)

- 1) 農業, 食糧, 營養(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ciences: AFNS)
(116件에 2천 9백 8십만 달러 지원)

AFNS의 기본목적은 개인의 식량과 기초영양의 섭취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AFNS는 단순히 식량생산을 증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균등한 배분과 도시나 농촌의 빈곤층의 구매력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궁극에 가서는 이들 빈곤층에게 농산물생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AFNS내에는 다시 다음과 같은 7개의 지원분과가 있다.

ㄱ) 營養分科(Nutrition Unit)

이 분과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를 지원한다.

- ① 지역사회 영양문제 발생의 광범위한 원인을 평가하는 방법의 발전과 제도화의 과제
- ② 영양향상을 위한 국가정책과 집행계획에 대한 과제
- ③ 영양에 있어서의 綜合프로젝트, 혁신적인 방법 그리고 관련연구분야로부터의 새로운 정보 확산에 대한 과제

애당초 營養分科는 南亞細亞와 아프리카 지역에 연구를 집중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南美와 東南亞지역에 대한 연구가 또 진행되고 있다.

一) 家畜制度(animal production systems)

家畜制度의 목적은 家畜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開途國의 貧民에게 食糧을 늘리는 데에 있다. ① 家畜制度 ② 飼料制度 ③ 制度部門의 3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家畜生產과 生產性向上을 위한 연구지원에 중점을 둔다.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所得과 食糧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二) 穀物生產制度

穀物제도는 公害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種子와 穀物연구는 기타 IDRC프로그램과 分科와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농업생산과 관련된 응용 또는 멀티디스프리너리(multi-disciplinary)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生命工學(biotechnology)과 같이 보다 기초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三) 山林業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山林開發프로그램과 연계된 응용연구달성이 山林 프로그램의 주 목적이다. 쾌적한 환경과 식량생산에 기여하고 山林소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研究에 중점을 지원을 한다.

四) 魚業프로그램

魚業프로그램의 두개의 주된 목적은 海洋으로부터의 食糧공급을 늘리고 그 지역과 해안 주민들의 생계향상에 있다. 魚業프로그램은 海洋문화육성과 魚獲기술증진의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五) 食品加工프로그램

中小규모의 農產物가공공정을 지원함으로써 농민과 도시영세민에게 보다 더 고급품질의 식량공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연구과제들에는 식품가공 뿐만 아니라 영양, 저장, 전조, 장비, 겹역 등이 포함된다.

六) 農業경제 프로그램

농업경제 프로그램에서는 新技術의 도입시에 경제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과제로 한다. 농업생산, 유통, 가공 등의 경제적인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연구지원을 한다. 또한 소득과 고용효과가 가장 큰 기술에 관한 연구가 강조된다.

2) 情報分野 (9件에 1백 30만 달러 지원)

이 분야에서는 雜誌, 刊行物 그리고 기타 오디오·비디오 매체를 통하여

IDRC 연구결과를 각 지역단위로 전파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新기술과 정책개발에 기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3) 地球科學 및 工學分野 (36건에 9백 4십만 달러 지원)

地球科學연구에는 주로 地球內의 물(水)에 관한 연구(hydrology)에 중점을 둔다. 環境문제와 관련된 工學原理를 연구한다. 여기에는 지진, 토양의 퇴적, 경사불안정성, 물의 공급과 水質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채굴하고 가공하는 연구도 다룬다.

4) 保健 및 衛生 (81건에 1천 5백 1만 달러 지원)

보건의 생태학적(ecology)인 측면에 관한 연구에 보조를 한다. 여기서는 地域共同사회구성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주로 연구한다. 保健과 共同社會, 保健制度, 健康과 環境 등의 연구가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保健과 共同社會 프로그램에서는 社會・經濟的인 환경과 人間行爲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가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된다. 지역 사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의 전달에 重點을 둔다. 또한 정보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보건에 관한 수요 그리고 보건의 우선순위와 보건정책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構造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保健制度(health systems)는 그 지역사회와 보건수요(health needs)를 의료보험제도와 연계시킨 것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보험의 운영, 보건 계획(health policy)과 地域보건기구의 연구능력 등을 다룬다.

保健과 環境(health and the environment) 프로그램에서는 빈곤층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이고 생물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한다. 食水의 공급과 사용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5) 情報科學分野(Information Sciences)(57건에 1천 8십만 달러 지원)

이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土着的인 시설능력의 확충, ② 경제발전연구에 합당한 정보의 관리와 사용 ③ 정보를 共有함으로써 경제발전연구에 있어서 협력과 조정의 증진. 이 分科에서는 개도국의 정보수요의 필요성에 우선순위를 둔다. 지역간 협력과 혼련을 통해서 기존 정보망의 강화에 기여한다.

6) 社會科學分野(Social Sciences) (92건에 1천 5백 3십만 달러 지원)

이 분과는 ① 경제정책 ② 인구, 교육과 사회 ③ 지역개발의 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정책 프로그램에서는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他지역의 연구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인구, 교육과 사회 프로그램에서는 인구동태학, 교육제도와 연수과정, 인간생존과 발전 그리고 土着的인 文化와 智識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지역개발프로그램에서는 住宅과 서비스공급(service delivery), 도시화계획, 지역개발 및 지역계획을 다룬다.

그 밖에도 環境문제, 경제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관료적인 사고와 公共政策 등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1989년도 예산의 지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총 1억 2천 3백 9십만 달러의 예산중에서 開途國의 지역연구와 기술원조 및 관련연구 활동에 9천 7백 2십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총 지출의 78.5%에 해당된다.

또 지역연구 지출내역 중에는 농업, 식량, 영양(AFNS)과 보건(Information Sciences) 및 지구과학과 공학분야(Earth and Engineering Sciences)가 약 5천 4백만 달러로 가장 큰 연구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과 정보학 분야로 2천 6백만 달러의 연구지출이 계획되어 있다.

8. 北歐 4個國의 地域研究

이러한 福祉型의 地域研究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과 같은 北歐 4개국의 경우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4개국에 있어서의 공통된 특징은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開發研究所의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점이다. 덴마크의 「開發研究센타」(Center for Development Research), 노르웨이의 「크리스챤 미쉘센 연구소」(The Christian Michelsen Institute) 스웨덴의 「北歐 아프리카 研究所」(Scandinavian Institute of African Studies)와 핀란드의 「헬싱키 大學 開發研究所」(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Univ. of Helsinki) 등이 있다.

이 연구소들은 開途國의 당면한 문제에 필요한 원조정책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林晃史, 1988 : 92).

미국의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나 캐나다의 CIDA(Cana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北歐 4個

國들의 원조기관은 대략 다음과 같다.

덴 마크 : 덴마크 國際開發局(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덴마크 發展途上國工業化基金(IFU)

노르웨이 : 노르웨이 국제협력국(NORAD)

開發途上國으로부터 수입촉진을 위한 사무소 (NORIMPOD)

스웨덴 : 스웨덴 국제협력국(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

스웨덴 開發途上國調查協力事業團(SAREC; Swedish Agency for Research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스웨덴 國제기술·경제협력사업단(BITS; Swedish Agency for Internation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스웨덴 發展途上國工業協力基金(SWEDFUND)

發展途上國產品의 輸入推進事務所(IMPOD)

핀란드 : 핀란드 外務部國際開發協力局(FINNIDA;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工業開發協力促進基金(FINNFUND)

이 4개국들의 원조의 목적은 다분히 理想主義에 입각한 福祉主義의 성격이 농후하다. 우선 이를 4개국은 南部 아프리카 開發調整會議(SADCC)라고 하는 南아프리카 共和國의 헤게모니로부터 자립을 목표로 하는 地域協力機構에 협동하여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출발한 사례이다. 이는 北의 協力機構가 南의 協力機構를 원조해 주는 모델 케이스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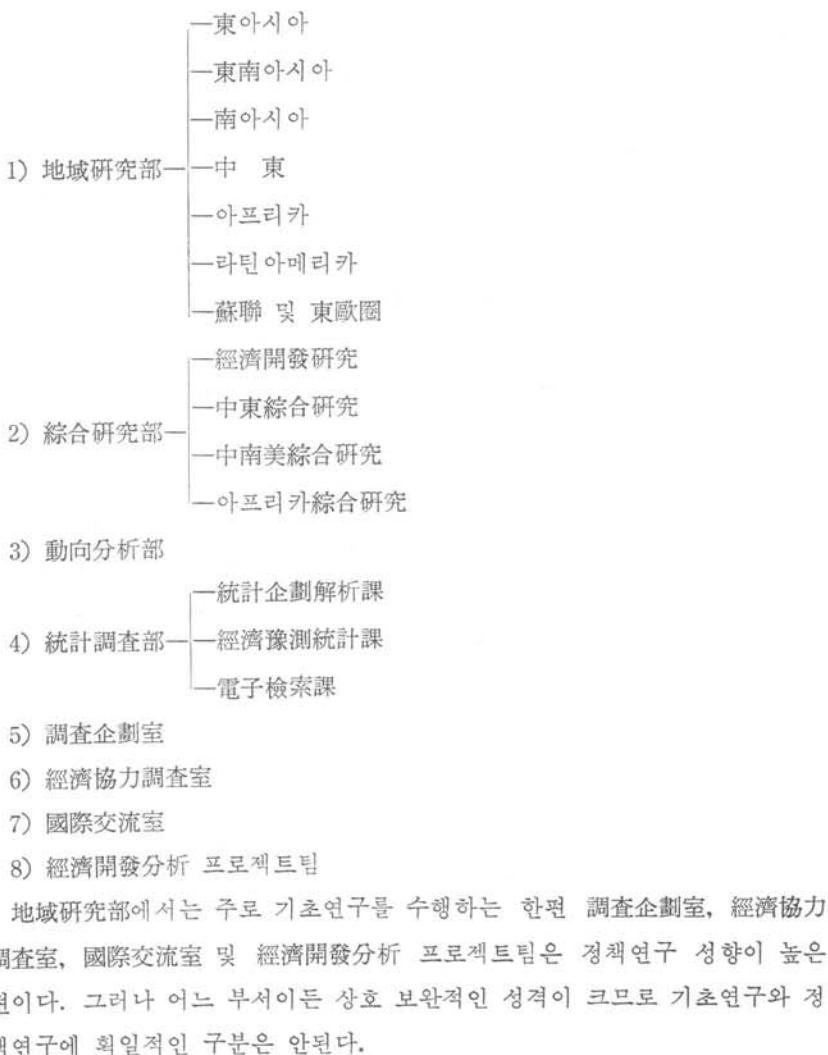
따라서 원조의 목적도 대상국과의 대화, 빈곤제거, 생태학, 女性의 開發參與, 社會正義와 開發, 베이직 니즈(basic needs)의 충족, 환경보호, 가족계획, 경제성장, 경제적·사회적 평등, 경제적·정치적 자유, 인권, 민주주의, 농촌, 경제사회개발, 경제자립, 자발적인 개발에의 원조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따라서 主要원조분야도 人道主義를 우선으로 한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농림, 보건위생, 上水道, 運輸, 通信, 電力, 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9. 基礎型 地域研究(아시아經濟研究所；亞研)

日本의 아시아 경제연구소는 1958년 12월 非營利法人으로 설립되었다가 1960년 7월 政府기관으로立法化되었다. 本 연구소는 基礎地域研究와 政策研究를 併行하고 있으나 어느 다른 연구소 보다도 基礎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축적된 업적도 많다.

아시아 경제연구소의 주요 연구부는 다음과 같다.



調査企劃室은 매년 연구프로그램을 짜고企劃하고 기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조정한다. 그리고 日本國內外에서 진행중인開途國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검토해서 연구기획에 반영시킨다. 調査企劃室은 또한自體내의 연구 프로젝트도 다룬다.

地域研究部에서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그리고 인접과학 분야를 총망라해서 포괄한다. 프로젝트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고理論的이고經驗的인 연구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와 또 국가간의 비교연구를 다룬다.

綜合研究部는 경제발전과 국제경제학에 있어서의理論的인 문제와 응용경제학의 과제를 다룬다.

動向分析部는 *Yearbook of Asian Affairs*와 *Asian Trends*를 발간한다. 이 두 잡지에서는 최근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경제·사회동향을 살고 있다. 또한 미래 발전을 전망하기 위해서 각국별로 제반 정치·경제·사회동향을 세밀히 관찰하고 분석한다.

統計調查部는 1992년도에 완성 예정으로 되어 있는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1985'를 작성중에 있다. 이 밖에도 'Econometric Link System for ASEAN Countries(ELSA)'와 'Short-term economic Prediction in Asia(SEPIA)'의 두 연구과제를 진행중에 있다.

이 밖에統計調查部는 약 130개국의 500개에 달하는 각국 정부, 연구소, 국제통계자료기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컴퓨터 시스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검색한다.

經濟協力調查室은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된 국제경제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88년도의 연구주제는 '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and Economic Cooperation'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개발정책과 기계산업에 있어서 신 국제정보망의 확충과 아시아新興工業國(NIES)에 있어서의法的制度의 발전과 채택 등을 다룬다. 1986년에 시작된 'Asian Industrial Development'의 연구과제는 아시아국가간에 해외직접투자의 동태적인 분석을 다루고 있다.

國際交流室은 모든 나라의學者와研究者간에 공동연구와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에서는 개도국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經濟開發分析 프로젝트팀은 開途國과 日本의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未來경제협력 분야를 추천한다. 이를테면 ① 日本경제협력의 效率性 ② 아시아 諸國에 있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中・小企業의 역할 ③ 開途國으로의 日本政府 원조에 대한 효과적인 活用에 관한 연구 등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아시아 경제연구소가 1989~90년의 기간에 걸쳐 진행중인 연구과제들이다.

地域研究部

- 과거 지역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 多方面에서 본 중국경제의 구조
- 공산사회의 私有化 이후에 지역행정의 재편성
- 中國의 대외관계와 政策路線의 전환
- 東南亞의 최근 농업발전과정과 新土地制度
- 베트남：경제개혁기에 黨의 정책노선과 경제운영
- 인도네시아의 新秩序와 回教徒
- 獨寡占의 비교연구：인도네시아와 멕시코
- 綠色革命이후 北部인도의 지역사회
- 파키스탄의 權力構造
- 이집트 경제발전의 성격
- 1980년도 후반기 中東國民의 社會心理
- 아프리카 제국에 진출한 非아프리카 기업에 대한 역사적 분석
-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구조와 사회계층의 전환
- 불가리아의 경제개혁：신경제질서의 도입과 발전

綜合研究部

- 開途國에의 貿易政策
- 環太平洋圈경제의 현재와 미래：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比較
- 아시아・太平洋의 地域協力에 관한 문제
- 巨視經濟政策과 外債問題
- 經濟發展에 있어서 소비자와 노동자의 행위
- 아시아의 제조업 시장구조의 변화와 外資의 역할
- 아시아의 農業私金融

• 中國의 石油產業

• 中東프로젝트

• 中東의 安定化 전망

• 中東의 動向分析

• 南美프로젝트

—南美의 경제 안정화정책

—1980년도 南美에서의 정치·사회적인 변화

• 아프리카 프로젝트

—아프리카 諸國의 都市化

動向分析部

• 아시아의 최근동향분석

• 아시아 諸國의 近代史

• ASEAN경제전망 : ASEAN NIES의 정치·경제 발전

• 아시아 諸國의 民營化 시책

• 印支半島의 경제재건 : 캄보디아, 라오스와 베트남

統計調查部

• 아시아의 國際產業聯關分析表 作成

• 開途國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요와 전파기술

• 開途國의 內部移民에 관한 比較分析

• 아시아 諸國의 地域社會發展 : 統計分析

• 中國과 日本의 계량경제 연결모델

• 중국의 人口변화에 대한 要因분석

• CMEA 加盟國들간의 貿易行列式에 관한 연구

• 아시아 경제의 단기예측에 관한 연구

• ELSA 링크 모델

經濟協力 調查室

• 아시아의 산업발전 프로젝트

—아시아의 기술이전과 산업화 :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전망

—싱가포르의 산업화

—말레이지아의 산업화

• 경제협력연구 프로젝트

—아시아 諸國의 國제經濟 협력과 산업정책

—日本 수출주도형 산업의 國際化戰略

—開途國의 貿易關係法 : 라틴 아메리카와 NIES의 최근동향

- 國際外債문제와 경제협력

- 브라질기업에 관한 경제분석

經濟開發分析 프로젝트팀

- 日本의 開途國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 開途國經濟의 산업구조변화와 中·小企業의 역할에 관한 연구

調查企劃室

- ASEAN과 인접국의 경제개발정책에 관한 共同研究

- 國際化시대에 있어서 韓國經濟의 위치와 環太平洋지역에의 波及效果

- 產油國의 油價政策과 意思決定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 日本 亞研의 研究프로그램을 살펴 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亞研의 연구방향은 캐나다나 北歐諸國의 福祉型 地域研究와는 다소간 차이가 있고 오히려 世銀의 開發型 地域研究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나 亞研의 연구는 世銀의 연구에 비해서 상당히 土着的이고 그 지역의 현실을 더 자세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더 면밀히 되어 있다.

亞研의 과거 누적된 업적을 살펴 보더라도 각 지역의 土地, 環境, 法律, 制度, 賃金, 勞動爭議, 租稅, 經營, 行政, 金融, 交通, 人口, 資源, 企業家, 指導者, 教育, 農村, 產業 등의 심도있는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최근의 亞研연구동향은 調查企劃室의 현 국제경제 질서의 동향을 전제로 한 연구과제들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亞研의 연구는 世銀의 研究와 최소한도 그 형식상으로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現實파악에 중점을 둔 亞研의 노력으로 더 심도깊고 현실감 있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은 亞研에서 발간된 服部民夫 編의 「韓國의 工業化—發展의 構圖」와 世銀에서 발간된 「韓國經濟」와의 비교에서도 알아 볼 수 있다(World Bank, 1987; 服部民夫, 昭和 63). 亞研에서 발간된 「韓國의 工業化」는 工業化的 展開(第Ⅰ章), 政治·社會的 條件(第Ⅱ章), 經濟的 條件(第Ⅲ章), 主要產業의 分析(第Ⅳ章), 韓國工業化的 今後(第Ⅴ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世銀의 「韓國經濟一產業轉換에 의 運營」은 巨視經濟發展(第1章), 韓國工業化政策의 合法性(第Ⅱ章), 貿易自由化의 現況(第Ⅲ章), 金融自由化의 現況(第Ⅳ章), 現今의 產業化政策(第V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두 연구의 目次에서도 그 연구의 방향이 드러나 있듯이 世銀의 韓國經濟연구는 巨視經濟指標上의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巨視經濟指標분석을 바탕으로서 경제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에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亞研의 韓國經濟 연구에는 제2장과 제3장에서 韓國工業화의 政治·社會·經濟的 조건을 설명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보다 더 깊은 현실감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亞研의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가 더 현실감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韓國의 工業化」의 筆者 자신들이 韓國語와 韓國의 習慣, 社會, 文化 등에 대한 이해가 더 깊기 때문이다. 또 亞研은 그 訓練과정의 하나로서 地域연구자는 담당지역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言語·文化·生活·習慣 등을 익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亞研의 地域研究에 대한 접근방법은 基礎研究를 중시하는 亞研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基礎研究는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완전히 專門化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는 하나 일단 완료된 기초연구는 政策研究에 커다란 밑받침이 된다. 즉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효과적이고 심도깊은 政策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는 利點이 있다.

그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시의적 절한 政策研究를 실시하는 데에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亞研의 경우 調查企劃室이 이러한 조정의 기능을 맡고 있으며 政策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팀’ 베이스로 연구를 수행해 나간다.

‘프로젝트팀’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 구성되었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그 구성원들은 다시 원래의 소속부서로 복귀된다.

그래서 亞研은 調查企劃室의 연구프로그램 조정기능을 통하여 基礎研究와 政策研究간에 有機的인 결합을 이룩하고 있다.

이밖에도 亞研은 각 해당 지역과의 共同研究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연구에 기여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캐나다의 IDCR나 北歐의 지역연구는 福祉的인 성격이 농후하므로 世銀의 開發研究나 亞研의 基礎 또는 政策연구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연구과제가 開途國의 필요에 의해서 선정되고 또 운영된다. 근본적으로 開發에의 隘路를 開途國들 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연구가 출발한다. 先進國은 단지 개도국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자본, 기술, 과학 및 경영을 통하여 도와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연구의 내용도 營養, 飲料, 保健, 衛生, 教育, 訓練, 技術, 環境, 住宅 등에 집중되어 있다.

IV. 우리나라 地域研究의 方向

우리나라는 開途國과의 資本協力을 위하여 1986년 12월 ‘對外經濟協力基金法’을 公布하고 1987년 7월 150억 원의 정부출연을 실시함으로써 ‘對外協力基金’(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을 설립하였다(羅元燦·宋河律, 1989).

교역규모로서 세계 10大國에 들어가는 韓國경제로서는 점차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汎地球經濟(global economy)의 一員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對外經濟協力基金’의 확충과 그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地域研究의 方向설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產業研究院(KIET), 對外政策研究院(KIEP), 貿易振興公司(KOTRA)와 그 밖에 각 대학내에 산재해 있는 부설연구기관들이 지역연구를 그 내용과 분야는 서로 다를지 모르나 시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地域研究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기능의 분리와 조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先進國의 地域研究사례에서 개관하여 본 것처럼 地域研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이를테면 世銀의 開發型, IDCR의 福祉型, 亞研의 基礎·政策型 중에서 어느型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것은 물론 地域研究의 研究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상지역을 汎世界的인 영역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한 과제

이다. 아니면 東南亞, 아프리카, 南美 중의 어떤 한 지역을 선정하여 전문화된 특수연구를 실시하느냐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東南亞지역을 생각해 보면 이 지역과의 상부상조를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지역연구가 가장 효과적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점은 基礎研究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 그 지역에 관한 정보와 자료수집이다.
- 그리고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연구 목적에 알맞도록 統計·計量분석을 해야 한다.
-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돋기 위해서 해당지역의 言語, 生活習慣, 文化 등에 대해서도 立體的인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 지역전문가의 육성이 중요하다. 지역연구자는 使命感을 가지고 해당지역에 대해서 완전한 專門家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자세가 필요하다.
- 지역연구자는 해당지역의 言語, 生活習慣에 능통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이러한 基礎研究를 바탕으로 해서 政策研究의 수립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開發型의 地域研究가 필요하다.

- 世銀의 과거 '프로젝트'型 經協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을 겨울삼아 '프로그램'型 經協개발에 힘써야 한다.
- 특히 대외경제협력에 있어서는 그 해당지역의 투자흡수능력, 직접투자의 효율성의 평가 등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 또 技術協力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도국과의 人的·物的 교류를 증진시켜서 교역과 투자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의 IDRC나 北歐의 福祉型 지역연구의 접근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① 농업, 식량, 영양 ② 정보 ③ 지구과학 및 공학분야 ④ 보건 및 위생 ⑤ 정보과학 및 ⑥ 사회과학 분야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 이 밖에도 덴마크의 IFU, 노르웨이의 NORIMPOD, 스웨덴의 SAREC, BITS, SWEDFUND, IMPOD 또는 핀란드의 FINNFUND와 같은 開途國과의 교역촉진基金의 설립도 중요하다.

- 또한 輸出入銀行과 같은 금융기관의 대외경제협력기능을 강화하여 日本의 國際協力事業團(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나 네덜란드의 海外融資會社(NOFC; Netherlands Overseas Finance Company)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KOTRA의 대외경제협력기능을 강화하여 地域研究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수집에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地域研究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 또한 EDCF는 日本의 OECF와 협조를 강화하여 대외경제협력에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현재 국내에 散在해 있는 지역연구의 專門化 내지는 研究分野의 특화가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본다.

- 상호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각 분야에 걸친 조정을 통해서 인터-디시프리너리 프로그램(interdisciplinary program)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 이를테면 개도국의 농업, 식량, 보건, 위생, 환경, 기술 등의 문제를 체계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一貫된 프로그램 아래서 상호 보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체계있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世銀, IDCR, 亞研의 경우에도 地域研究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世銀, 亞研 그리고 IDCR은 그 研究主題의 방향설정이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

世銀의 경우에는 政策・企劃・研究(PPR) 부에서 개괄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나머지 10개 分科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또 日本의 亞研의 경우에는 基礎地域研究의 기반위에 調査・企劃室에서 世銀이나 國際通貨基金(IMF)의 국제경제연구의 동향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지역연구주제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IDCR의 경우에는 研究主題가 開途國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설정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研究主題의 방향은 결국 基礎・政策・福祉 이 세 분야에 관한 연구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나 地域研究의 영률이 쌓이고 그 연구내용이 축적됨에 따라 연구기관별로 地域別 또는 研究主題別로 特化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이를테면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대의 정책문제에 관한 지역연구는 政府機關의 연구소가 적절한 특화연구기관이 되겠으나
- 基礎型 또는 福祉型의 地域研究나 또는 순수한 開發經濟模型으로서의 地域研究는 分野별로 共同研究를 해야 될 인터-디시프리너리 한 측면이 많고
- 또한 長期的이고 持續的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연구방향이 정부정책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연구기관이나 大學내의 지역연구소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또한 지역연구에는 산재해 있는 基礎資料와 情報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초정보센터를 KOTRA의 기능을 강화해서 활성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開發型 地域研究에 있어서는 그 접근방법이 과거의 投資계획과 연계된 프로젝트型의 開發전략에서 국제시장의 흐름을 중시하고 시장제도의 세계경제발전에의 기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형 開發전략으로 발전된 점을 연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新興工業國經濟(NIES)의 輸出主導型開放化전략이 관심을 끌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체너리 등에 의해서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開發경제의 측면에서 본 지역연구에 있어서는 新開發思考를 중시하는 國際經濟主義의理念에 따라서

- 市場制度나 관련된 構造調整의 문제
- 經濟開發에 있어서 市場制度의 역할
- 東歐圈 경제의 市場制度改革에 따른 西歐圈 경제에의 파급효과 등을 연구과제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國際經濟主義에 따른 지역연구는 국제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開途國의 경제발전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연구로 구분한다. 前者는 주로 巨視的인 방법을 後者는 微視的인 방법을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 국제시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환율, 무역, 이자율, 통화, 물가, 자본자유화 산업구조 조정의 문제가 연구의 관심사가 되고
- 개도국의 애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경영, 교육, 훈련, 생산공정, 품질관리, 부품공급, 마케팅,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의

微視的인 연구가 관심분야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적인 빈곤의 문제가 해소되고 어느 정도 수준의 福祉國家가 완성되는 단계에 가서는 福祉型 지역연구가 중요해 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5,000달러의 국민소득수준에서 우리나라가 福祉型 개발연구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결국 南·北 쌍방의 경제이익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의 지역연구가 당분간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역연구의 방향은 결국 기초정보와 자료 수집 정도의 基礎研究에 開發型 政策研究를 가미한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순전히 人道主義의 차원에서 출발했던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간에 南·北간의 경제협력은 상호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交易·投資·技術의 활발한 교류에는 北측에 책임이 있다. 결국 현재의 우리나라 經濟力에 걸맞는 南·北 교역확대를 위한 지역연구가 바람직스럽다.

〈附錄 別添-1〉

世銀의 世界開發報告書(World Development Report)

1985

- 國際資本市場과 經濟發展
 - 經濟發展의 諸段階에 따른 外債 調達
 - 制度와 政策環境의 변화와 開途國資金調達의 量과 構成의 변화
 - 國際共同體와 金融危機

1986

- 世界經濟의 持續成長을 위한 政策
 - 인플레퇴치와 市場機能活性화를 위한 先進工業國의 정책
 - 貿易障壁解消와 外資導入을 위한 開途國의 정책개혁
 - 開途國과 先進國간에 농산물 자유무역의 추진
 - 開途國의 農業정책(환율, 물가, 세금, 마케팅, 안정정책, 보조금과 정책개혁)
 - 先進國의 農業정책

1987

- 世界經濟의 調整과 成長의 障碍要因
 - 工業化와 國際貿易(工業化的 추세와 構造轉換)
 - 政府의 役割
 - 工業化와 貿易政策
 - 貿易政策改革
 - 工業發展에의 補完政策
 - 保護主義의 威脅
 - 開放化政策
 - 工業化와 世界經濟

1988

- 工業先進國간의 경제不均衡
 - 開途國간에 不均等成長
 - 汎世界經濟의 不均衡調整을 위한 政策手段
 - 經濟發展과 公共財政
- 經濟發展에 있어서 公共財政의 役割
- 安定化와 調整을 위한 財政政策
- 稅制改革
- 公共支出의 效率的 管理方案
- 選別部門에 있어서 支出優先順位와 收入옵션
- 地方財政
- 公共企業의 改革을 통한 公共財政의 확충

一其他의 經濟改革

1989

- 經濟發展과 金融制度
- 開途國에 있어서 金融部門의 문제
- 金融市場의 歪曲現象
- 金融制度의 基礎
- 金融制度의 發展
- 國際金融市場의 문제점
- 金融市場開放化의 課題

參 考 文 獻

羅元燦・宋河律

- 1989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개발원조정책」, 서울 : 산업연구원.
- 松井 謙
1979 「開發援助の 經濟學」, 東京 : 新評論.
- 林晃史 (編)
1988 「アフリカ 援助と 地域自立」, 東京 : アジア 經濟研究所.
- 服部民史 (編)
昭和 63年 「韓國の 工業化 發展の 構圖」, 東京 : アジア 經濟研究所.
- Cheney, H.B. and Strout, A.M.
1966 "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 Cheney, H.B., Robinson, S. and Syrquin M.
1986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Oxford.
- Harrod, R.F.
1948 *Towards a Dynamic Economics*. London: Macmillan.
- Hirshman, A.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 Press.
- IDCR
1989 *Annual Report*. Ottawa.
-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1989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Annual Report*. Tokyo.
- Little, I.M.D. and Mirrles, J.A.
1969 *Manual of Industrial Project Analysis in Developing Countries*. OECD.
- Meier, G.M.
1974 *Problems of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xford Univ. Press.
- Myint, H.
1971 *Economic Theory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 Myrdal, G.
1968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London.
- Nurkse, R.
1953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Blakwell.
- Prebisch, R.
1964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Report by the Secretary-General of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 1968 *Toward a Global Strategy for Development* (Report by the Secretary-General of UNCTAD). United Nations.
- Rostow, W.W.
1960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Univ. Press.
- Singer, H.W.
1975 *The Strateg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Essays in the Economics of Backwardness*. London: Macmillan.
- The World Bank
1989 *The World Bank Annual Report*. Washington.
1987 *Korea, Managing the Industrial Transition*. Vols. 1 & 2. Washington.